

새 책

▶들개를 위한 변론(우재욱 지음)=오래전부터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싶었던 저자는 들개가 떼를 지어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기사를 접한 뒤 북한산을 중심으로 들개를 찾아 나섰다. 기사에서처럼 정말 들개는 위협한 동물일까? 들개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며, 그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 기록이다. 지성사. 2만3000원.



▶어떤 남자를 스치다(이원재 지음)=이 시집은 지금은 떠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울림을 준 정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시집이다. 저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은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림움이 묻어난 시로 채워져 있다. 몽토. 1만원.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허영만 지음)=2019년 5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한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1주년을 기념해 식객의 먹방 여행을 책으로 만나다. 이 책은 식객이 전국을 돌며 직접 맛본 음식 중 '베스트 오브 베스트' 200곳을 선전해 소개한다. 선정 기준은 '집밥 같은 백반', '놀라운 가성비', '그럼에도 놀라운 맛'으로 이뤄졌으며, 서울, 인천·경기, 강원, 대전·충청, 부산·대구·경상, 광주·전라, 제주 등 총 7개 지역의 음식집이 소개됐다. 가디언. 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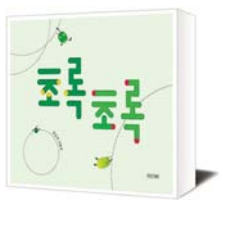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박합수 지음)=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면 그 상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많은 주택 유형이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아파트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책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조망하며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1만8000원.



▶어린이를 위한 사피엔스(마이클 브라이언트 지음·해너 베일리 그림·김아림 옮김)=이 책은 '인류는 어떤 존재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쥐와 비슷했던 초기 영장류, 유인원의 시대를 지나 수많은 위기를 넘으며 오늘에 이른 진화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 미래 인류는 어떤 모습일지도 예측한다. 한겨레아이들. 1만3000원.



▶초록초록(이순욱 지음)=작가는 초여름에 만난 평평한 초록 감을 보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이 그림책을 시작하게 됐다 한다. 그래서일까, 작가의 시선을 보여주거라도 하듯 어디다 눈을 두어도 초록색 모습을 한 각종 열매들, 일명 '초록'들이 가득하다. 자연스레 두 눈은 주위에 펼쳐진 수많은 초록들을 향하게 된다. 사계절출판사. 1만2000원.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행복한 나라’ 덴마크 교사 10명을 만나다

마르쿠스 베른센의 ‘삶을 위한 수업’

교실 안 긍정적 경험 중요 왜 배워야 하는지를 설명

“사소한 일이라도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목표하는 지점입니다. 학생들이 겨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좋은 경험으로 한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덴마크의 고등학교에서 수학, 물리, 천문학을 가르치는 15년차 교사 헤닝 아프셀리우스. 그는 공부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과 의욕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이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한국특파원으로 활동하며 3년 동안 세 아이를 서울에서 키웠던 덴마크 저널리스트 마르쿠스 베른센과 덴마크 행복사회를 분석한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오연호 작가가 공동 기획한 ‘삶을 위한 수업’엔 헤닝 아프셀리우스 등 덴마크 교사 10명이 등장한다.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이 선정한 훌륭한 교사상 수상자 등 각계에서 추천받은 이들은 자신의 수업 철학과 수업 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마르쿠스 베른센이 저 먼 북유럽의 교사들을 오연호 작가의 번역을 거쳐 소개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쳐진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안겨주면서 주눅들지 않게 하고, 교과서보다 학생들의 질문에 더 주목하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덴마크 교사들의 목소리를 우리 앞으로 불러냈다.



“학생들은 프로가 되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배움이 꼭 춤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삶과 직업적 생활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어요. 직업적인 댄서가 되지 않더라도 피드백을 주고받는 법을 제대로 배워두면 인생을 사는 동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6년차 댄스 교사 마리아네 스키프의 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교육에도 한층 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시대에 ‘행복한 나라’ 덴마크의 교사들은 희망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오마이북. 1만5000원. 전선희기자

일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어깨 토닥일 노래

일·노동 주제 59편 엮은 ‘땀 흘리는 시’

땀은 우리가 몸을 움직여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내 한 몸에 주어진 오롯한 힘과 노력으로 세상과 정직하게 만난다. 우리 노동은 통해 자기를 먹이고 식구를 거두고 공동체의 꿈을 실현한다. 그러나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젊은 세대는 취업난에 허덕이며 끊임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자리에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일하는 당신의 어깨를 토닥이는 노래들이 있다. 김선산·김성규·오연경·최지혜가 엮은 시 선집 ‘땀 흘리는 시’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는 아이의/ 추운 발소리를 듣는 애비는 잠결에/ 귀로 운다’는

김주대의 ‘부녀’로 시작되는 선집엔 일, 노동을 테마로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시 59편이 모였다. N포 세상에 내던져진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선집 ‘땀 흘리는 소설’의 후속 시리즈로 나왔다.

월·화·수·목·금·토·일요일 시편들을 넘기다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천차만별의 방식으로 고용되어 땀 흘리며 살아가는 걸 알게 된다. 시에서 노동은 단지 에피소드가 아니라 세상을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삶 그 자체다. ‘학교 알바집, 학교 알바 집/ 다림질 쳇바퀴가 따로 없다/ 학교 다니며 죽어라 알바해서/ 생활비 보태고/ 뼈뚫하게 용돈을 쓰고 나면 빈털터리’(김예란의 ‘킥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초콜릿’)인 게 이 시의 청춘만일까?

“땀 흘리는 시”들은 먹고 자고



일하는 나날 속에 낯설고 놀라운 삶의 국면들을 보여준다. 반복과 변주, 변화와 차이의 리듬을 드러내는 시를 통해 일이 가져다주는 변화무쌍한 감정과 감각을 맞볼 수 있다. ‘다른 세계를 꿈꾸지 못하는/ 이 가난한 마음들, 병든 마음들’(송경동의 ‘나의 모든 시는 산재시다’)을 향해 한 편 한 편의 시는 “오늘도 당신의 땀은 헛되지 않았다”는 격려를 보낸다. 창비교육. 1만2000원. 전선희기자

이 책 김신자 시조집 ‘당산봉 꽃뭉살’

제주어여서 붙잡을 수 있었던 몸짓

2004년 문단에 나왔지만 그는 한동안 시를 놓고 살았던 것 같다. “다시는 시를 쓰지 못할 줄 알았다”는 시인의 말에서 짐작된다. 어느 봄날 ‘늑스’ 나이를 헤치며 ‘울렁울렁 올라오는 언어의 몸짓’은 시인을 일으켜 세웠다. 제주 김신자 시인이다.

그가 이 봄에 첫 시조집 ‘당산봉 꽃뭉살’을 내놓았다. 보통의 시집 분량보다 갑절 두 배인 건 제주어 시조가 나란히 실렸기 때문이다. 이른바 ‘표준어 시조’ 60편과 ‘제주어 시조’ 60편이 한데 담겼다.

제주시 환경면 용수리 출생인 그의 시편은 상당수 고향과 그 부근으로 향하고 있다. 표제의 당산봉을 시작으로 용수리 포구와 저수지, 명쟁이, 수월봉, 자구내, 아홉굿 마을 등으로 퍼진다. 사춘기 소녀가 만났던 풍경은 이제 비



김신자 시인은 첫 시조집 ‘당산봉 꽃뭉살’에서 ‘울렁울렁 올라오는 언어의 몸짓’을 제주어 시조로 풀어내고 있다.

고향 가닿은 오랜 기억과 현대의 이야기 제주어로 “제주어문학의 희망 예고”



린내가 나고 귀머거리(‘용수리 저수지에서’)가 되어버렸다. 시적 화자는 젖은 마음을 말리기 위해 도대불 비추는 자구내 포구(‘준치’)에 선다.

제주어보전회원인 시인은 제주어 시조를 따로 쓰긴 했지만 표준어 시에 이미 제주어를 취한 시편이 적지 않다. 시집 머리에 펼친 ‘아든노’만 해도 대체불가한 제주어다. ‘아든노’는 해녀들의 ‘물질’ 도구인 ‘데악’의 ‘망사리’에 달린 그물을 ‘어음’에 묶어주는 줄을 뜻하는데, 작은따옴표로 친 어휘들부터 제주어다. ‘용수리 저수지에서’는 제주어 시조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용수리 뱅딧물에서’란 제목을 달 수 있었다.

시집 ‘허전바레당 푸덕진다’ 등 제주어 시를 꾸준히 창작해온 양전형 시인은 ‘당산봉 꽃뭉살’에 대해 ‘어머니 숨비소리로 뿔까 까진 소파의 시간’(현 소파의 시간)처럼 제주어 작품과 표준어 작품 모두 탄탄하게 문학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 양 시인은 “정형시에서 제주어로 음보와 운율을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작업”이라며 “옛 어른들의 생활 이야기가 아닌 현재의 시집에서 전래 제주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제주어문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미래를 예고한다”고 했다. 다층. 1만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0년 6월 신간 안내 “아마추어 제주 작가가 쓴 문제의 화제작!”

일요일 없는 달력

삶은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꿈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장난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속임수 같았다.
의식의 유희가 만들어낸 허무한 변명이었다.
말썽꾸러기 의식이 만들어낸 매 순간 최후의 만찬이었다.
성수聖水가 앞바다에서 튀어 올랐다.
모두가 바다를 꿈꾸는 각자의 소금인형이었다.

출간하자마자
입소문으로만
5천권 판매 돌파!



김 용 각 바람을 안주 삼아 너털웃음을,
그 바람에 실려 보내 기도 하는 어느 어리석은 자...

TEL. 070-7714-1571 Mobile. 010-6686-3030
e메일 hongikpbc@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hongikpbc
web site www.hongikpbc.com

도서출판 홍익

계좌번호. 농협 351-1104-6746-73

출판등록 제651-2019-000044호
통신판매업 등록 제 2020-제주도2-0089호